

건군대업은 인민해방군이 태어나면서부터 모두 성장했음을 그린 영화다.

1927년 난창 봉기를 주선으로, 추수 봉기를 보선으로 하여 마오쩌둥(毛泽东), 주덕(朱德), 주은래(周恩来) 대표되는 중국 공산당의 선구자들이 중국 인민 군대 창설의 탐색과 실천을 적극적으로 전개했다는 이야기를 담았다. 이 혁명 선구자들은 모두 아주 젊었는데 한창 꽃다운 나이에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도외시하고 후회없이 청춘과 생명을 바쳤다.

영화가 시작될 때 시위행진을 하던 노동자와 학생들이 북양군벌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여기저기 널려있는지 광경은 보기만 해도 아찔하다. 그들이 앞사람이 쓰러지면 뒤사람이 일어나가면서 의로운 일에 뒤돌아보지 않고 전진하는 것을 보면 그 기세가 매우 웅장하고 기백이 넘친다.

이 영화는 1927년 "8.1"남창봉기를 주요단서로 하여 장중정 반혁명정변, "8.1"남창봉기가 승리에서 실패한데로부터 다시 정강산에 이르러 회합하는 전반 과정을 재현하였다. 장중정을 비롯한 국민당 뉴라이트는 상하이에서 국민당 좌파와 공산당을 반대하는 무장 정변을 일으켜 공산당원과 국민당 좌파를 무참히 학살하고 학생들의 시위가 무자비하게 사살되는 등 극렬한 투쟁을 벌였다.

이 영화에는 하이라이트 에피소드가 두 개 있다. 첫째, 주은래 등이 군대를 거느리고 남창성을 진공하였지만 오래동안 함락하지 못하자 협정은

주동적으로 참전할 것을 요청하고 포병부대를 거느리고 감체고지를 폭격하면서 그 극은 고조에 달했다. 둘째, 주덕이 거느린 3,000 명이 삼하패(三河坝)를 수비하고 전대균(钱大钧)의 부대 1 만명을 저항하였다. 마지막 날, 전대균의 부대가 총공격을 개시할 때 주덕의 부대는 철저히 방어하고 사수하면서 전대균의 부대와 함께 돌아갔다. 선행행군을 위해 귀중한 시간을 쟁취하자 주덕은 남은 부대를 거느리고 전대균의 부대를 따라 정강산으로 이동하여 모택동이 거느린 부대와 회합하였다. 모택동이 거느린 추수봉기 부대와 주덕, 천의(陈毅)가 거느린 상남봉기, 하룡(贺龙)이 거느린 남창봉기 일부 부대의 정강산에서의 승리적 회합하고 노농혁명군으로 편성되었다. 회합하여 혁명의 불씨를 확보하였으며 나아가서는 후에 맹렬하게 변화하는 기세를 이르게 되었다.

이 영화로 인해 나는 중국의 그 부분의 역사에 대해 더욱 많이 알게 되였고 선배들이 얼마나 노력했기에 지금의 평화를 이룩할 수 있었는지를 알게 되였다 우리의 지금의 평화로운 날대의 아름다운 생활은 그들이 생명으로써 나라의 미래를 지탱해 나가는 것이므로 우리는 어렵게 얻은 행복한 생활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